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吳 瑛 燮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1. 머리말
2. 한말의병운동의 연합적 성격
3.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
4. 고종세력의 항일의병전략
5. 평민의병장의 근왕적 측면
6. 병사층의 지향과 군자금 문제
7.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6월 일본군의 무단적인 경복궁 강제점령부터 1905년 11월 불법적인 을사늑약과 1907년 7월 고종퇴위·정미조약·군대해산을 거쳐 1910년 8월 한일병합까지 일제의 대한침략은 예정된 수순을 밟아갔다. 이에 우리 민족은 국가와 영토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총궐기하여 일제에 대항했다. 당시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은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타도하고자 무장 봉기한 의병운동은 한말 구국운동의 여러 방략 중에서 가장 강렬한 반일운동이었다.

한말의병운동은 국가멸망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생사와 명리와 성패를 돌아보지 않고 외세에 대항한 애국세력들의 항일무장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교육과 산업 및 국혼의 진작을 강조한 애국계몽운동과 달리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명성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이 운동은 191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무대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인적자원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 장기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정신적 원천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므로 한말의병운동은 한국민족운동사의 原型이요, 한국독립운동사의 前史라고 평할 수 있다.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의병운동의 참여세력 문제를 둘러싸고 의병장 중심의 민족주의적 연구경향과 평민층 중심의 민중주의적 연구경향으로 구분된다.¹⁾ 양자의 경향을 넘나든 연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자는 양반유생층과 전직관료와 해산군관의 활동을 중시한 견해로서

1) 대체로 전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海: 維新社, 1920; 金義煥, 『韓國近代史研究論集』, 成進文化社, 1972; 金義煥, 『義兵抗爭史』, 博英社, 1974; 金義煥, 『抗日義兵將列傳』, 正音社, 1975; 朴成壽, 『獨立運動史研究』, 창작과비평사, 1980; 國防部 戰史編纂研究所, 『義兵抗爭史』, 1984; 金鎬城, 『韓末 義兵運動史 研究』, 高麗苑, 1987; 조동길, 『한말 의병 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洪英基, 『大韓帝國期 湖南義兵 研究』,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柳漢喆, 『柳麟錫 義兵 研究』, 국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金祥起, 『韓末義兵研究』, 一潮閣, 1997; 具完會, 『韓末의 堤川義兵』, 집문당, 1997;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8. 후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桂奉瑛, 『義兵傳』, 『(상해관) 獨立新聞』, 1920; 姜在彦, 『反日義兵運動의 歷史的展開』, 『韓國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1970; 金度亨, 『韓末 義兵戰爭의 民衆的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II, 창작과비평사, 1985; 오길보,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洪淳權, 『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史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金順德, 『京畿地方 義兵運動 研究(1904~1911)』,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朴殷植의 의병관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포군층과 해산군인과 농민층의 활약에 주목한 견해로서 桂奉瑋(계봉우)의 의병관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전자는 특정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의병장의 항일활동과 의병사상에 대한 사례분석에 치중하며, 후자는 평민층의 사회경제적 지향과 반제·반봉건적 성격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는 한말의병운동을 재야세력만의 항일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전통적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병운동의 발발·전개·지향·특질과 직결된 중앙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문제나 중앙세력의 의병진 내에서의 활약상을 주목하지 못했다. 둘째, 의병운동이 재야세력의 단순한 군사활동이 아니라 중앙세력의 황제파천운동·조선중립화운동·청원외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정치적 민족운동’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셋째, 의병운동에 가담한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참여동기·노선차이·이해관계 등 대내적 지향성을 깊이 분석하지 못했다. 넷째, 지역적 사례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일반적 양상·성격·지향, 운동 내적 특성, 그리고 향후 의병운동에 끼친 영향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왕의 연구에는 의병운동의 역동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병운동의 구조와 특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상의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한말의병운동을 연구할 경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앙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장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교적 통치이념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왕조국가인 대한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재야세력의 무장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중앙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후원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야세력의 항일무장투쟁은 중앙세력의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정통성과 적법성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그 운동의 강렬성·연합성·전국성·지속성을 담

보하였다. 따라서 한말 항일의병운동시에 중앙세력이 재야세력의 활동에 어떻게 간여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깊이 파헤치는 것은 한국근대사의 특질을 구명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동안 필자는 한말의병운동을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인 반일민족운동으로 파악하는 기왕의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한말의병운동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이 외세구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굳게 뭉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다”는 새로운 의병관을 주장해왔다. 이를테면, 국가와 민족의 위난기에 高宗勢力(고종황제와 그 측근 인사)의 항일의지와 재야세력(유림의병장, 해산군인·포군층, 농민층 등)의 항일열기가 서로 맞물려 한말의병으로 승화되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²⁾ 이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한말의병운동을 연구할 경우 새롭게 주목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2. 한말의병운동의 연합적 성격

한말의병운동은 일반적으로 갑오변란·변복령·을미사변·단발령·아관파천을 계기로 일어난 1895~1896년간의 전기 의병운동³⁾과 한일의정서·

2) 이러한 문제인식이 반영된 연구성과로는, 오영섭의 일련의 논문(『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國史館論叢』 65, 1995;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密旨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韓末 13道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미간행 논문, 2004 참조.

3) 金祥起의 주장(『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46-53쪽)에 따라 전기 의병운동의 기점을 1894년 가을 안동에서 봉기하여 서울진격을 목표로 곤지암까지 진출한 서상철의병으로 잡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僞東學軍’이란 칭호를 받은 서상철의병은 대원군계의 동학의병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具完會, 『堤川義兵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 『朝鮮史研究』 5, 1996.

을사늑약·군대해산·고종퇴위·경술국치 전후에 봉기한 1904~1914년간의 후기 의병운동을 포괄하는 말이다. 양차의 의병운동기에 한국의 충의세력들은 고려시대의 몽고침략과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구국의병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상대로 치열하게 항쟁하였다. 특히, 후기 의병운동기에 한민족은 고종세력과 재야유림이 주축을 이루었던 전기 의병운동기의 신분적·사상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종세력·재야유림·향리층·농민층이 대거 망라된 각계 각층의 민중이 참여하여 거족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일제의 대한침략이 격화됨에 따라 거의 동시에 봉기를 준비중이던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극적인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들은 지위·신분·사상·지역·학통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일파와 일본군을 물리치고 국가와 국왕과 강토를 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충군애국론에 공감하여 연대하였다. 그들의 항일논리에는 만국공법의 수용, 동양평화론의 주창, 일본과 서양국가의 인정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소간 근대적인 국가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냉정히 말해 아직은 유교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다소 강한 편이었다. 이때 강렬하면서도 이기적인 고종세력의 구국의지는 소박하면서도 생존권 확보를 중시하는 재야세력의 반외세 의식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한말의병운동으로 승화되었다.

한말의병운동 당시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항일의병은 적게는 20명 내외로부터 많게는 1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세를 이루었다. 이들 가운데 1~20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로 각지에 출몰하며 부호층·친일파·개화관료를 상대로 반일성 토색활동을 벌인 이른바 假義와 대규모 연합의병이 해체된 다음 잔여의병이 새로이 設陣하여 게릴라성 반일활동을 전개한 소규모 의병들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의병들은 적어도 수백명 이상의 부대로 구성된 연합의진에 소속되어 의병장·중군장·선봉장·부대장의 지휘를 받았다. 환언하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말의병은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극복하고 특정 의병장 휘하에서 일원

적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말의병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연합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말의 연합의병은 크게 지도부와 병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지도부에는 고종세력(전주이씨·일부 민씨척족·친구미적 근왕파·전현직 보수관료·고종의 근시 내지 별입시)·재야유림(척사·혁신 유림)·전현직 관료·해산군관·이서층 등이, 병사층에는 해산군인·포군·동학군·농민·상인·임노동자·보부상·승군 등이 가담하였다. 이 중 지도부의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이 의병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축세력이었고, 병사층의 포군과 농민은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의 지휘를 받아가며 의병운동의 원활한 전개에 밑거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말의병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들은 충군애국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중층적인 연합성을 이루었다. 먼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간에 그리고 지도부와 병사층간에 대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대연합의 근거에는 다시 계층간 사상배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고종세력과 재야유림, 관료층·유림세력과 평민세력, 고종세력과 포군세력, 유생의병장과 평민의병장, 연합의병장과 군소의병장, 전직관료·전직무관과 해산군인·포군, 포군장과 일반포군·민군 사이에 소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말 연합의병은 지역·신분·지위·학통·빈부가 각기 다른 여러 세력이 모여 중층적 연합성을 이룬 조직상·편제상의 특성을 보였다. 이때 각 세력간의 중층적인 연합성의 강약 여부는 무기의 우수성, 병사들의 숙련도, 지도부의 통솔력과 함께 의진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의병운동의 주도세력 가운데 하나인 유림세력이 장의 전에 이미 패배를 자인했던 것처럼 한말의병운동은 성패보다는 의리심과 애국심과 협동심을 중시한 항일구국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⁴⁾

그러면 아주 다른 배경을 지닌 수 백명의 병사들을 특정 의병장의 휘하에 집결시켜 대규모 연합의병을 탄생시킨 동인 내지 매개체는 무엇이었는

4)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6-7쪽.

가? 현재 한말의병의 거의이념으로 위정척사의식·반개화의식·반제의식(항일의식)·반봉건의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상논리는 한말의병의 무장활동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말의병의 거의단계부터 활동단계까지의 여러 과정에서 부차적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척사·혁신유림, 포군영수와 해산군관을 제외할 경우, 비교적 사상성이 박약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고종세력과 일반평민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장활동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인가 하는 소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외세침략기에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이 품고 있던 원초적 형태의 반개화·반일의식을 역사의 전면에 분출시켰을 뿐더러, 그들을 특정 의병장의 휘하에 집결시킨 촉매제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상기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망기에 재야세력과 고종세력이 고종명제의 密旨(密勅·衣帶詔·哀痛詔)⁵⁾를 통하여 신분·지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고종세력의 밀사들이 재야의 명망가와 유력자와 무용가들에게 전달한 밀지는 유교의 충군애국사상을 철저히 신봉하는 재야세력의 반외세·반개화 의식을 직접적인 무장활동으로 승화시켰다. 이로써 재야세력이 숭앙해 마지않는 고종의 권위를 상징하는 밀지와 그러한 밀지를 작성·전포한 고종의 근신들은 한말의병의 봉기와 연합을 가능케 만든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한말의병이 조직화·대규모화·장기화·전국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⁶⁾

5) 민영환이 거의를 당부하며 文錫鳳에게 내려준 還刀, 을미 제천의병의 중군장 李春永이 차고 있던 육혈포, 을사늑약 후 姜錫鎬가 閔宗植에게 전달한 마패, 고종의 측근 金升旼이 간도와 연해주에서 사용한 마패, 1908년 연해주에서 柳麟錫·李範允·安重根 등이 소지했던 馬牌 등도 모두 밀지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 물품이었다.

6) 일정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 가운데 최초로 봉기한 의병장의 경우 고종세력으로부터 고종의 권위를 상징하는 밀지나 혹은 밀지에 준하는 내락을 받았는가의 여부, 뒤늦게 봉기한 의병장의 경우 밀지의 최초 수령자가 인근 각지에 전포한 복사본 밀지와 창의격문을 받거나 혹은 그에 영향받은 다음에 일어났는가의 여부, 연합의병 해체후 수십명 단위로

한말의병운동 때에 고종세력이 재야에 전포한 밀지의 사본들은 많이 남아 있다. 문집과 창의록을 살펴보면, 한말의병운동을 대표할 만한 연합의병장들은 거의 모두 고종의 밀지나 혹은 밀지에 준하는 내락을 고종세력에게서 직접 받은 다음에 창의의 깃발을 들었다. 당시 의병장들은 밀지나 내락을 받은 다음 짧게는 2~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나서 거병하였다. 이는 그들이 인근을 돌아다니며 동조자를 규합하고, 자기 측근을 보내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하고, 군사활동에 필요한 포군과 민군 및 병기를 확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군과 민군의 급료와 군량료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문제는 재야의 항일의병장들이 고종의 신물인 밀지를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말의병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인석은 일제의 황무지개척권요구 반대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1908년 (음)8월에 “속히 哀痛詔를 재야 충의지사에게 거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하였고,⁷⁾ 을사조약후 金福漢과 같이 상경하여 을사늑약 반대 및 토역 상소를 올린 林翰周는 “속히 哀痛詔를 내려 충의지사를 소모하고, 또 13도관찰사로 하여금 각기 관하 士民을 선발하여 종군케 하라”고 했으며,⁸⁾ 명망 높은 전직관료인 李南珪는 최익현에게 보낸 편지에서 “衣帶 속에 감춘 密詔만이 온 나라의 신민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이다”고 하였고,⁹⁾ 근왕주의적 계몽운동가 겸 아나키스트로서 고종황제와 관계가 깊었던 李會榮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나키스트 李丁奎는 1913년경 이회영이 일시 귀국하여 항일운동을 벌일 때에 “지방 부호를 움직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궁중을 연락하여 高皇帝의 밀지를 받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¹⁰⁾ 또한 일본의 침략야

분산되어 게릴라성 항일활동을 벌인 소규모 의병의 경우 밀지를 최초로 받은 의병장의 정통성을 승습하거나 내세웠는가의 여부 등이 충군애국을 모토로 활동한 의병과 반일성 화적활동을 일삼은 ‘假義’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점이다.

7) 柳麟錫, 『毅菴集』, 권35, 『漆室憤談』(1908. 음8).

8) 林翰周, 『洪陽紀事』, 『독립운동사자료집』 2, 288쪽.

9) 李南珪, 『修堂集』, 권3, 『答崔贊政益鉉』(1906).

육을 간파한 임병찬이 1904년 봄에 閔泳韶·李容植 등 고종세력에게 창에 필요한 밀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종세력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1906년 3월에 가서야 비로소 그에게 밀지를 주어 거의하게 하였다.¹¹⁾ 심지어 정미의병장 盧炳大는 을사늑약후 거의할 목적으로 단신으로 상경하여 직접 고종세력을 찾아가서 밀지를 요청하였고,¹²⁾ 을미의병장 鄭漢鎔과 후기 호남의병장 李錫庸은 儒者로서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¹³⁾ 이를 보면 재야세력은 고종세력에게서 밀지나 거의에 대한 내락을 받아야만 의병장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말의병장이 받은 밀지 가운데 전기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밀지는 1895년 (음)12월 15일자 밀지이며,¹⁴⁾ 후기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밀지는 1905년 (음)11월 22일자 밀지이다. 전자는 김하락·유인석·이소용·최문환·徐相烈·기우만·허위 등 유명한 을미의병장들이 소지했던 것이며, 후자는 전라도 의병장 최익현에게 내려진 것이다. 특히, 閔景植·閔丙漢·李正來·閔衡植 등 고종의 측근들의 성명이 말미에 부기되어 있는 후자는 최익현에 의하여 호남 각지의 무용가와 명망가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 중 후자를 훑어보면 밀지의 형식과 내용의 대강을 파악할 수가 있다.

10) 李丁奎, 『友堂 李會榮 先生 略傳』, 『又觀文存』, 三和印刷, 1974, 36쪽.

11) 林炳瓚, 『遜軒遺稿』, 권1, 『上閔輔國泳韶書』; 宋相燾, 『林炳瓚』,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1971, 106-107쪽; 林炳瓚, 『遜軒問答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114-115쪽.

12) 宋相燾, 『盧炳大』, 『騎驢隨筆』, 130쪽.

13) 정한용은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자신이 1894년 가을 영남 일대에 내려진 국왕의 밀지를 받고 거의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항변하였다. 『李錫庸』, 『騎驢隨筆』, 13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247-248쪽. 또 全海山은 광주관찰사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고종의 詔書가 없이 거의했음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하였다. 전수용, 『全海山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375쪽.

14) 李正奎 編, 『倡義見聞錄』, 『독립운동사자료집』 1, 647쪽; 閔龍鎬 著, 李泰吉·閔驪植 共譯, 『復齋集』, 昭文出版印刷社, 1988, 216쪽.

아이! 애통하다. 나의 죄악이 크고 가득하여 하늘도 돕지 않고 많은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이로 인해 강한 이웃이 틈을 노리고 逆臣이 정권을 놓단 하고 있다. 4천년 예의의 나라가 나의 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犬羊의 지역이 되고 말았다. 내가 무슨 낮으로 聖廟를 뵈옵는단 말이나. 나의 실낱 같은 목숨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직 宗廟·社稷과 만백성을 생각하여 이에 哀痛의 密詔를 내려 진 參政 崔益鉉으로 都體察使를 삼아 7道에 보내노라.

湖西는 忠義軍으로, 湖南은 壯義軍으로, 嶺南은 奮義軍으로, 關西는 勇義軍으로, 關東은 強義軍으로, 海西는 扈義軍으로, 關北은 熊義軍으로 삼아 각기 의기를 세우고, 良家의 재주 있는 자제들을 모두 召募官으로 삼으라. 각 軍中의 印章은 모두 스스로 새겨서 사용하고, 觀察使나 郡守로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보고에 앞서 먼저 파직 처분을 내려서 그들의 마음을 단일하게 만들라. 京畿 1도는 朕이 그 군사와 더불어 社稷을 위해 殉死할 것이다. 옥새를 찍은 편지를 비밀히 내리는 것이니 이를 참작하라.

乙巳 11월 22일 밤 畿輔에서 발급함.¹⁵⁾

고종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러한 밀지는, ①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을 충군애국론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수행했고, ② 가부장적 유교이념이 지배하는 군주제 국가에서 재야세력에게 무단거병에 대한 합법적 명분을 제공해 주었으며, ③ 밀지를 처음 받은 의병장이 복사본 밀지나 창의격문을 인근 각지에 발송하여 창의를 독려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전국화를 가능케 하였고, ④ 병사소모, 군량확보, 군수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신물의 역할을 수행했고, ⑤ 재야의 무용가에게 의병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었고, ⑥ 밀지를 수령한 의병장이 밀지의 권위에 힘입어 인근 각지의 대소 의진을 통할함으로써 대규모 연합의병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고, ⑦ 다양한 의병참여세력에게 지위·지역·학통·당색·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왕과 국가를 위해 함께 분투해야 한다는 사상적 일체감을 지니게 하였다.

15) 吳駿善, 『沈南一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927쪽.

3.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

한말의병의 참여세력 문제에 국한하여 논급할 경우, 기왕의 연구는 의병장 중심의 민족주의적(혹은 국수주의적) 연구경향, 평민층 중심의 민중주의적 연구경향, 그리고 양자를 절충한 연구경향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는 의병운동의 참여세력 가운데 재야세력에 해당하는 양반·평민 의병장과 평민 병사층만을 주목했을 뿐이다. 아울러 기왕의 연구는 다양한 재야세력들이 외세침략에 대응하여 자발적·독자적으로 창의하여 일정지역을 무대로 반제·반봉건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한말의병운동의 항일민족운동으로서의 순수성과 이념성과 반제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상기 두 가지 연구경향에는 연구자 개개인들과 의병 후손들과 한말의병 관련단체들의 현재적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의병운동 참여자들의 자부심, 자기 조상들의 의병활동을 중시하는 일부 의병 후손들의 자긍심, 자기존립의 근거를 한말의병의 애국정신에서 찾고 있는 소수의 의병관련 단체들의 당파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0년대 이후 20대 초반의 나이에 열혈의 의분심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 등이 무의식적 내지 무비판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의병운동의 실상파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재야세력의 의병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후원한 고종세력의 경제적·인적 지원활동이나 의병진 내에서의 활약상에 관련된 사료들이 의병자료에 적잖게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연구경향에는 그러한 사료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고종퇴위 이후 서구의 계몽사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유교의 충군애국론이 한국 재야신민들의 사고를 지배하였다. 아울러 1908년경까지는 전제군주제의 정점에 위치한 국왕 고종이 측근의 많은 신

하들을 통하여 여전히 재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191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근대사상이 한민족의 민족운동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기 전까지, 의병운동과 복벽운동을 비롯한 한국근대 근왕적 민족운동의 여러 조류들은 고종 및 그 주변세력과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수백년간의 강고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이 한말 의병운동의 전개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래에서 논급할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문제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1894년 6월 일제의 경복궁 강제점령 직후 그리고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의 체결 직후에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창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양대 세력의 창의활동은 일본군과 친일파의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그들의 창의노력은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거치면서 표면화되었고,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요구 반대운동과 을사늑약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때 중앙의 고종세력과 재야의 유력가·부요층·武勇家들은 충군애국의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일제의 단계적 침략에 대응하여 점차 고조되고 있던 일반 인민들의 항일열기를 적극 수렴하여 의병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이처럼 한말의병운동은 국가멸망의 위기상황 속에서 국권과 군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국망기에 하층민의 항일열기를 수렴하여 의병운동으로 승화시킨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명성왕후 시해사건 후부터 경술국치 전까지 중앙과 지방 각지에서 재야세력과 연계하여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한 중앙인사들은 상당히 많았다. 범칭하여 고종세력에 포함되는 이들 중앙인사들은 국권과 군권 및 기득권을 수호하

16)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5쪽.

고자 반일운동에 종사한 강렬한 근왕 성향의 정치세력이었다. 고종세력의 정점에 위치한 고종을 제외할 경우, 이들은 한국측 자료에는 근시·別入侍, 일본측 자료에는 궁중과·궁정과·寵臣으로, 영·미측 자료에는 Royalist·Loyalist로 나온다.

그러면 고종세력의 범위는 어떠한가. 바꾸어 말하면, 특정 인사를 고종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한 기준으로는 첫째, 대한제국과 고종 부처를 적극 옹위하는 집단, 둘째, 고종의 전제적 황제체제를 지지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을 극력 배척하는 집단, 셋째, 지방에 동족집단과 鄉第 등 일정한 세력기반을 지닌 채 중앙정계에서 활약하는 집단, 넷째, 궁내부에 소속되어 궁중을 무시로 출입하며 고종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 다섯째, 고종 부처의 반일·친구미적 외교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집단 등을 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해, 고종세력은 동도서기적 정치노선과 반일·친구미적 외교노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대한제국의 국권과 고종의 전제군주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배적인 정치세력이었다.¹⁷⁾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경우, 1895~1896년의 전기 의병운동기에 활약한 고종세력으로는 高宗과 閔妃, 閔泳煥·閔泳綺·閔丙星 등 민씨척족, 金炳始·宋近洙·申應朝·李容直·崔益鉉 등 노론계 보수대신, 李範晉·李允用·李完用·李根永 등 親露親美 성향의 貞洞派, 沈相薰·李世鎮·洪秉晉·嚴尙宮·金鴻陸·李範允 등 고종과 민비의 측근(근시) 및 측근들의 수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갑오경장부터 아관파천까지 고종과 민비의 왕권회복운동, 춘생문사건, 을미의병운동, 아관파천 등의 반일운동에 참여한 중앙의 정치세력이었다.¹⁸⁾

1904~1914년간의 후기 의병운동기에 활약한 고종세력으로는 고종황제와 엄비, 의친왕 이강·李容泰·李容直·李容元·李範晉 등 전주이씨, 閔宗

17)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 48쪽.

18) 전기 의병운동에 관여한 고종세력에 대해서는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제2·3장 참조.

植·閔景植·閔丙漢·閔衡植·閔泳達·閔應植·閔泳喆·閔炯植 등 일부 반일 성향의 민씨척족, 沈相薰·申箕善·鄭煥直·姜錫鎬·李相天·李鳳來·李裕寅·金升旼·姜昌熙·元禹常·元用常·李紹榮·趙南斗·趙南升·朱錫冕·李會榮·韓圭高·許薦 등 고종의 측근과 별입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을사조약 전후, 군대해산 및 고종양위 전후의 시기에 재야세력과 연계하여 의병봉기를 추진하였다.¹⁹⁾

고종세력은 고종의 전제적 황제체제와 동도서기적 사회체제를 지지하는 중앙정계의 근왕세력이었다. 이들은 외교노선면에서 대체로 강석호·김승민·민경식·이범진·민영환·심상훈으로 대표되는 반일·친구미파와 허위·이상천·정환직·이유인으로 대표되는 반외세 자주파로 구분된다. 극소수 인사를 제외하면,²⁰⁾ 이들은 갑오경장 후부터 경술국치 후까지 일제에 추종하지 않고 강력한 반일운동을 펼쳤던 충의세력이었다. 이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발발, 한일의정서 및 을사조약의 체결, 고종퇴위 및 군대해산을 전후한 시기에 직접 재야세력과 연대하거나 혹은 측근의 밀사들을 재야로 파견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종의 국권수호방략에 따라 항일의병운동과 청원외교활동과 애국계몽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1905~1909년간 '義兵干連' 내지 '치안방해' 혐의로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엄한 문초를 받고 몇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국망기에 고종세력은 자신들이 직접 재야로 낙향하거나 혹은 휘하의 문객이나 수하들을 재야로 내려보내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거의를 추진하였다. 고종세력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 혹은 자신들의 자의에 따라 재야세력과 연대관계를 맺을 때에 자신들의 문객이나 수하들을 밀사로 동원하였다. 당시 고종세력의 밀사들은 ① 고종 명의의 밀지를 재야세력에게 전달하여 그들에

19) 후기 의병운동에 참여한 고종세력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제3장 참조.

20) 閔宗植·閔炯植(남작)·張承遠·李容泰(남작) 등은 경술국치후 일제에 대한 타협노선으로 돌아섰다.

게 거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²¹⁾ ② 전국 각지를 유력하며 거의축구 활동을 폈으며, ③ 직접 군사를 모집하여 의병장에 올라 항일전을 치르기도 하였고, ④ 대규모 연합의진의 전략·전술과 재정조달을 책임지는 총독장·모사장·참모장·중군장·참모·종사 등직을 맡았다. 따라서 한말의병운동은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 항일민족운동이 아니라 중앙의 고종세력과 긴밀한 연계하에 조직적·연합적으로 추진된 항일민족운동이었다.

고종세력의 창의활동의 결과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文錫鳳·鄭寅羲·柳麟錫·盧應奎·李昭應·閔龍鎬·金河洛·崔文煥·奇宇萬·許蔦·李麟榮 등 유명한 의병장들이 고종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鄭喬는 아관 파천 직후 정동파 내각이 의병해산령을 발표하자 “이보다 앞서 각처 의진은 모두 밀칙(밀지)을 받고 일어났다”고 설파하였다.²²⁾ 또한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元容八·鄭雲慶·李康季·高光洵·金東臣·沈南一·安圭洪·奇參衍·蔡應彦·李範允·安重根·申芻石·柳麟錫·柳弘錫·崔益鉉·金道鉉·鄭煥直·鄭鏞基·朴箕燮·盧應圭·安重根·閔宗植·李麟榮·盧炳大·許蔦·李殷瓚·金賢峻·李紹榮·車晟忠 등 기라성 같은 항일의병장들이 고종세력의 창의독려 및 창의후원 활동의 결과로써 일어났다. 이들 항일의병장들은 향촌에 내려온 고종세력이나 그들의 밀사로부터 고종의 밀지나 혹은 밀지에 준하는 내락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거의하였다.

요컨대 갑오경장 후부터 경술국치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의리심과 애국심과 항일의식에 따라 거의를 준비중이던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중앙의 구국세력인 고종세력과 연대하여 창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말의병운동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합작품이었다.

21) 고종세력의 수하나 문객들이 소지한 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的 性格』, 68-72, 87-93쪽.

22) 鄭喬, 『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139쪽.

4. 고종세력의 항일의병전략

한말의병운동 당시 고종세력은 재야세력의 창의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독려했다. 그리하여 지방 각지에서 수많은 항일의병장들이 고종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고, 나아가 고종세력의 밀사들이 의진의 직임을 맡아 직접 의병활동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때 고종세력이 정략적 동기와 개인적 사유 때문에 재야세력을 봉기시켜 그들을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역사해석이다. 고종세력이 전투력과 조직력과 자금력이 빈약한 재야세력을 봉기시키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그들 나름의 항일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강렬한 구국외의지의 소유자들인 고종세력은 상비군이 부족한 대한제국의 사회현실을 타개하고 그들의 최종목표인 국권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병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하였다.

고종세력은 청국과 러시아를 연이어 격파한 신흥강국 일본의 강대한 무력을 간파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동학농민항쟁 때 근대식 연발총으로 무장한 2천여 명의 '東學黨征討軍'이 구식 화승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20만 명의 동학농민군을 무난히 진압한 사실을 직접 목도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고종세력이 무기와 훈련이 빈약한 수백명의 재야의병을 지방 각지에서 모집하여 의병진을 구성시킨 근본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따져봐야 한다. 한마디로 고종세력은 중앙에서의 항일운동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유리한 분위기를 지방에서 조성하려는 聲東擊西戰略에 따라 재야의병과 연대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일본군과 친일파를 구축하고 왕권(황권)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고종세력은 다양한 항일구국방략을 동원하였다.²³⁾ 이러한 항일방략은 외침의 강도가 약했던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국권회복보다 왕권회복을 중시했던 반면,

23) 갑오경장기 고종의 왕권회복운동에 대해서는 吳瑛燮,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1-79쪽.

국가존망이 결판난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왕권회복보다 국권회복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쉽게도 실패로 끝난 고종세력의 항일방략의 핵심은 균세외교와 의병운동이었고, 대한제국 멸망 직후인 1910년대까지도 지속된 것은 파천운동과 의병운동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것은 고종세력이 수행한 핵심적 항일방략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각개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거의 동시에 펼쳐졌다는 점이다. 이때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진 외교투쟁으로서의 均勢政策과 무장투쟁으로서의 義兵戰爭은 고종세력의 항일방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국망기에 지방 각지에서 대규모 항일의병을 봉기시켜 일본군과 친일파를 구축하려 했던 고종세력의 항일의병전략의 궁극목표는 두 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만국공법의 균세론에 따라 구미열강 상대의 국권수호외교를 성사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²⁴⁾ 다른 하나는 구미공사관으로 파천하거나 국내 외 모처로 망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항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종과 그 측근들은 전국 각지에 밀사를 파견하여 의병을 봉기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인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게 하였다. 이때 다양한 재야세력 가운데 의병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만이 고종세력과 연계하여 그들의 항일전략을 숙지하거나 파악한 상태에서 활동했을 뿐이며, 하층민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의병세력들은 고종세력의 항일전략과 상관없이 생존권 확보의 차원에서 의병활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의 만국공법의 균세론에 입각한 국권수호외교와 항일의병운동과의 관련성을 일제는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閔宗植은 1905년 11월 체결된 日韓新協約에 반대하여 지방에서 폭도를 일으켜 한국 全土를 소요의 불바다로 만들어 列國의 간섭을 불러일으켜 일

24) 고종의 만국공법에 입각한 균세외교에 대해서는 姜相圭, 『高宗의 對外觀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오영섭, 『개항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 『東方學志』 124, 2004.

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획책했다.²⁵⁾

폭도 중 거괴 沈南一·姜武景·安桂[圭]洪·林昌模 등의 일당에 이르러는 약간 그 趣를 달리하여 엄히 부하의 비행을 계척하고 약탈을 금하여 오로지 韓民을 선동하여 폭동의 영속과 도당의 강대만을 힘쓴다. 이리하여 그 목적하는 바는 이 폭동의 영속·항구는 실로 일본의 대한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統監정치가 그릇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마침내는 列國으로 하여금 이를 容喙케 해서 한국의 독립을 安固케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품고 있다.²⁶⁾

즉, 일제는 한국의 항일의병장들이 서구 열강으로 하여금 일본의 대한 침략을 저지케 하려는 의도에서 한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치열한 항일전을 치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고종파천운동(고종망명운동)은 일제의 병탄정책과 고종의 항일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였다. 일찍이 을미사변후 친로파의 거두 이범진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함께 고종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을 주도하였다.²⁷⁾ 동시에 이범진은 그 전략의 성사를 위한 성동격서전략의 일환으로써 국왕의 밀지를 지닌 밀사를 각지에 보내 재야세력의 거의를 고무·격려하였다.²⁸⁾

이번 사변(아관파천)은 러시아공사관의 후원에 의해 貞洞派인 즉 李範晉 등의 음모에서 나온 것은 명료한 사실입니다. 애당초 이범진 등이 먼저 春川 폭도를 誘起해서 비밀리에 이들과 기맥을 통하여 크게 일을 벌리려는 경황을 나타냈습니다.²⁹⁾

25) 『독립운동사자료집』 3, 『朝鮮暴徒討伐誌』, 673-674쪽.

26) 『韓國獨立運動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68, 806쪽.

27)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이범진 공사에 관한 러시아 외교자료], 슈베이에르공사->로바노프외무장관(1896.1.30), 외교통상부, 2003, 142-143쪽.

28)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238-251쪽.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親露派 李範晉 등의 음모에 대한 보고』, 143-144쪽.

각처에서 봉기한 폭도들은 원래 이범진 등이 춘천의 폭민을 선동한 데서 시작되어 새로 각처에서 만연된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모두 국모를 위한 복수 또는 단발령에 대한 반항 등에서 일어났고 나아가서는 일본인 배척에까지 이른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범진 등은 이 틈을 타서 謀計를 써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³⁰⁾

당시에 민간에 나돌던 서울은 춘천의병이, 인천은 충청도의병이, 부산은 경상도 및 강원 남부 의병이, 원산항은 영동의병이 내습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풍설은 의병운동과 파천운동의 상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³¹⁾ 이처럼 을미의병운동은 고종세력의 은밀한 반일활동과 지방유림과 하층민들의 강렬한 반일활동이 서로 맞물려 역사의 전면에서 표출된 것이었다. 그런데 재야세력의 의병운동과 중앙세력의 항일전략이 긴밀한 연관하에 동시에 전개된 것은 후기 의병운동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후기 의병운동기에 고종세력은 전기 의병운동기의 의병전략을 다시 확대하여 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 고종세력은 대외적으로 전시중립을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의 파천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904~1910년간 고종은 불란서공사관이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과 러시아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 내관 姜錫鎬는 춘천으로, 별입시 吉永洙는 평양으로, 李根澤은 러시아공사관으로, 李容翊과 玄尙健은 불란서공사관으로, 李載純은 러시아나 불란서공사관으로의 파천을 주장하였다.³²⁾ 또한 고종은 1898~1910년간에 크고 작은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러시

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新政府의 現況報告』, 154쪽.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0, 『江原道 春川府 暴徒 蜂起件』, 232쪽. 오길보, 『조선근대반일운동사』,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43쪽.

32) 『日本外交文書』, 37-1, #349, 『京城中立…皇帝播遷…件』, 319-320쪽, #519, 『韓帝의 露國公使館播遷說 情報件』, 440-441쪽, #533, 『韓帝佛國公使館播遷說…件』, 448쪽, #540, 『露國公使…來報件』, 454쪽; 幣元坦, 『日露間之韓國』, 100-101쪽.

아공사에게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과 러시아로의 망명을 타진하고 있었다.³³⁾ 이러한 고종파천운동은 후기 의병운동기에 궁내부대신 沈相薰의 사자 金顯峻의 의병활동을 이면에서 지원한 李相龍(相義)이 동지 李圭洪에게 “접때 興州(順興의 金教林·李康奎) 일행의 뜻과 같이 과연 御駕가 대궐 밖으로 출동했는가”라고 물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³⁴⁾ 고종측근들과 의병지도 부간에 모종의 교감하에 추진되고 있었다.

고종파천운동과 관련하여 한말 대규모 의병진의 기본전략인 서울진공작전도 고종파천운동의 구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³⁵⁾ 양차의 의병운동기에 고종세력과 연대한 연합의병장들은 대부분 서울로 진공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몰아내자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의 무력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뿐더러 거사 이전에 이미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을 만큼 현실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도성탈환전은 표면적인 목표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연합의병장들의 궁극 목표는 일본군을 서울 외곽으로 끌어내 궁성 수비를 약화시키고, 그런 사이에 고종의 파천이나 이어를 쉽게 단행하려는 성동격서전략을 지방에서 후원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³⁶⁾ 게다가 후기 의병운동기에 춘천·제천·해주·속리산·지리산 등 지방 요충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이 13도창의군과 같은 대규모 연합의병부대의 후미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일본군 수비대를 붙잡아두는 지연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연전략도 크게 보아 고종파천운동의 구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3) 朴鍾淳 편역,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32-33, 101, 105, 279, 388-389, 405-406, 733쪽.

34) 李相龍, 『石州遺稿後集』, 「與洗心軒」 六.

35) 한말 13도창의군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愼鏞廈, 「全國 ‘13道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 『韓國近代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88; 吳瑛燮, 「韓末 13道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36) 의병활동 중에 경상도의 鄭煥直·申翌石, 전라도의 安圭洪 등이 위로부터 “속히 (군대를 몰아) 올라오라”는 전갈을 받았던 것도 고종세력이 그러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방증해 준다.

전·후기 의병운동기에 고종세력과 연합의병장들은 하층 인민들의 피어린 혈전을 배경 삼아 외국공사들과 구미 열강들의 반일·반전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의 대한침략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구미공사관이나 국내·국외의 모처로 고종의 이어를 단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각개적·분산적·고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말 대규모 연합의병의 항일활동은 고종세력의 연합적·입체적·전략적인 구상에 따라 추진되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국망기에 고종세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중앙에서의 국권수호외교 및 고종과천운동과 지방에서의 항일의병운동은 고종의 항일전략의 중핵임과 동시에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³⁷⁾

5. 평민의병장의 근왕적 측면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군대해산 이후에 평민출신의 민중의병장이 대거 출현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주도층이 양반층에서 평민층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측 자료에 수록된 의병장들을 통계처리하여 도출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역사적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① 대규모 연합의병의 연합의병장과 그 휘하의 의병장(중군장·선봉장·후군장·소모장·유격장 등)을 동급으로 분류하였고, ② 연합의병장의 피체·전사로 연합의병이 해체된 후 1~30명의 군사로 게릴라 활동중인 부대장을 적어도 수백명의 군사를 거느린 연합의병장이나 1~2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의병장들과 동급으로 처리하였고, ③ 1~20명 정도의 군사로

37) 동학농민항쟁 때에 平壤의 淸軍을 남하시키고 三南의 동학농민을 북상시켜 중앙의 일본군과 친일개화파를 토벌하려던 대원군파의 南北拔擊戰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李相侁, 『東學黨과 大院君』,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Lew Young Ick, "Korean-Japanese Politics behind the Kabo-Ulmi Reform Movement 1894 to 1895,"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 1981.

써 의병인지 화적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반봉건·반일성 토색활동을 벌인 부대장들을 모두 의병장으로 간주하였고, ④ 일제의 효과적인 탄압작전 이후 등장한 소규모 게릴라 부대장들은 평민층의 신분상승 욕구나 반제의식의 확대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의병운동의 해체과정 내지는 독립군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임을 간과했으며, ⑤ 신분과 이력이 불명하여 통계에서 다루지 못한 의병장이 많을 뿐 아니라 일본 측이 공판조서에 ‘平民’으로 기록한 경우에도 사실상 평민이 아니라 주경야독하는 양반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념할 경우에 한말의병운동 당시 평민의병장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국망기에 대표적 평민의병장들은 그들의 신분이 평민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의병장에 오르는 과정과 그들이 벌인 의병활동의 전과정이 반드시 평민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차라리 고종세력이 평민의병장의 창의와 활동에 미친 영향을 깊이 따져보는 것이 평민의병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그런데 평민의병장들은 거의 대부분 창의록류의 문건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력이나 활동상을 깊이 파헤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말 평민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申堧石·安圭洪·洪範道 3인과 고종세력과의 관계만을 간략히 논급하겠다. 이로써 평민의병장 이해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왕에 평민으로 알려진 신돌석(申泰鎬)은 사실 평민이 아니라 중인층인 향리의 후예였다.³⁸⁾ 더욱이 그는 부친의 재력을 바탕으로 이웃마을의 진성 이씨가 설립한 양반서당에서 양반들과 같이 수학한 양반급 향리였다.³⁹⁾ 신돌석이 의병활동에 착수하자 부친 申漸柱는 처음에는 쌀 100섬을 가져왔다가 종내에는 전재산을 내놓았다고 한다.⁴⁰⁾ 이러한 사실들은 신돌석 가문이

38) 신돌석에 대해서는 김정미, 「한말 경상도 영해 지방의 의병전쟁」, 『大邱史學』 42, 1991.

39) 李炳國, 『挽申舜卿』, 『敬山文集』.

40) 김희곤, 『신돌석 : 백년만의 귀향』, 푸른역사, 2001, 34쪽.

영해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남다른 호협성과 무용성 외에도, 바로 이러한 가문배경이 신돌석의 의병활동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신돌석은 1906년 4월 6일 영해에서 100여명의 군사로 일어나 1908년 10월까지 영해·양양·평해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그런데 신돌석의 창의를 고종세력의 구국의지와 영해지역 재야세력의 항일열기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였다. 즉, 신돌석은 고종세력인 정용기-정환직 부자와 金顯峻-李相龍의 양면적인 후원과 지도에 힘입어 거의했던 것이다. 을사늑약 후 어전에서 밀지를 받은 정환직은 아들 정용기에게 거의를 당부했고, 1906년 1월 귀향한 정용기는 측근 정순기를 통하여 인근의 우국지사인 신돌석에게 거의를 독려하였다. 1905년 8월 대궐에 들어가 고종의 밀지를 받은 김현준은 경상도로 내려가 이상룡·李圭洪 등과 거의를 도모했고, 안동의 이상룡은 주변의 무용가인 신돌석의 거의를 후원하였다.⁴¹⁾ 따라서 신돌석의진은 밀지를 소지한 연합의병장과 재야유력자의 독려와 후원을 받고 뒤늦게 일어난 군소의진이었다. 또한 신돌석의진에 신분과 권력이 신돌석을 능가하는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도,⁴²⁾ 기왕의 주장처럼 영해지방에서 신분차별이 해소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돌석이 고종세력의 대리인인 정용기나 이상룡에게서 의병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인물이기 때문이었다.⁴³⁾ 따라서 앞으로는 신돌석의 평민성·豪勇性과 고종세력의 근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여전히 신화에 휩싸여 있는 신돌석의 의병활동을 사실 그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41) 李圭洪, 『洗心軒日記』, 乙巳-己酉年條; 李濬衡, 『先府君遺事』, 『石洲遺稿後集』. 이상룡은 1909년 2월 안동경찰서에 끌려가 의병과의 연결을 호되게 추궁당하였다.

42) 신돌석의진에는 1901년 내부주사를 지낸 白南壽를 비롯하여 務安 박씨·載寧 이씨·大興 백씨 등 영해지방의 양반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김정미, 『한말 경상도 영해지방의 의병전쟁』, 49-52쪽.

43) 신돌석이 장가갈 때에 양반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인근의 양반들에게 봉변을 당한 일은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가 호남지방의 ‘폭도 거괴’ 가운데 전해산·심남일과 함께 첫째가는 인물로 꼽은 전남 보성의 안圭洪(안담살이)은 양반가에서 품팔이를 해가며 모친을 모신 평민이었다. 그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개탄하며 거의를 도모하다가 주변의 머슴꾼들을 규합하여 1908년 2월 의병을 일으켰다.⁴⁴⁾ 그런데 안규홍의병의 결성과 활동은 보성의 유력자이자 우국지사인 安極과 朴南鉉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福內面의 참봉 안극과 彌力面의 참관 박남현은 무용이 뛰어난 안규홍을 적극 후원하여 거의시키고 배후에서 군수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안극은 평소 도적방비를 위해 양성하고 고용한 家兵 100여명을 안규홍에게 주었고, 자가의 토지까지 팔아서 안규홍의병의 군수품에 충당하였다. 그래서 안극은 ‘숨은 의병’이라는 평을 받았다.⁴⁵⁾ 이때 안규홍은 후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극의 강학소인 一松亭에 불을 지르고, 안극의 가택을 습격하여 그를 포박하고 군수전을 탈취하며 거짓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⁴⁶⁾

안극은 전남관찰사를 지낸 다음 고종의 대외청원의교에 진력한 별입시 閔泳喆과 친한 사이이며 의병장 민궁호와 죽마고우 사이였다.⁴⁷⁾ 그는 부인이 여흥 민씨 閔胃顯의 손녀였던 관계로 여흥 민씨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⁴⁸⁾ 그가 1905년 10월 상경하여 민영철을 만났을 때에 민영철은 자신의 보검을 내보이며 사용할 곳이 없음을 한탄했는데,⁴⁹⁾ 사실상 이때 양인은 거의를 모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술하면, 민영철이 고종의 지시에

44) 洪英基, 『大韓帝國時代 湖南義兵 研究』,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29-132쪽.

45) 全羅南道史編纂委員會 編, 『全羅南道史』, 1956, 812쪽.

46) 『全羅南道史』, 812쪽; 『寶城群鄉土史』, 湖南文化, 1974, 278-283쪽. 또한 장홍의 嚴萬五, 고흥의 宣亨洙, 보성의 李元淑·李鎰 등이 안규홍에게 군수품과 군자금을 제공하였다.

47) 安極, 『晦隱集』, 권1, 「閔雲沙壽序」. “既切竹馬之交 又勤帛鷹之托”.

48) 安極, 『晦隱集』, 권4, 「行狀」.

49) 安極, 『晦隱集』, 권1, 「哀閔松西泳喆台疾逝于中國」. 을미의병운동 때에 민영환은 문석봉에게 자신의 보검을 내주며 거의를 당부했는데, 문석봉은 이를 소중히 품고 있다가 임종 때에 관에 넣어달라고 말했다. 文永井, 「家狀」, 『義山遺稿』, 권4.

따라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대외청원활동을 성원하기 위해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안극의 임무였을 것이다. 朴南鉉은 1904년 8월에 설립된 충의사의 회원인데, 충의사는 허위·이상룡 등 항일의병장들이 여럿 가담한 항일단체였다.

안규홍의병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吳周一과 최익현의 영향으로 거의한 廉在輔가 있었다. 전자는 서울에서 수십명을 거느리고 보성으로 내려와 안규홍이 창의를 직후에 합류하였다. 그런데 안규홍의병의 전략과 전술은 대부분 병법에 해박한 오주일의 지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⁵⁰⁾ 이를 보면 오주일은 고종세력이 군사학에 정통한 인사에게 자금과 군사를 주어서 특별히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오주일이 데려온 청년들의 군수비나 고용비는 보성의 부호나 서울의 고종세력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1906년에 곡성에서 최익현을 만나 거의를 맹세한 다음 최익현의병의 격문을 사방에 전달하였고, 1908년 봄에 안규홍을 主將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副將이 되었다.⁵¹⁾

홍범도는 1907년 11월경 차도선과 함께 관북지역의 삼수·갑산·북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평민의병장이다.⁵²⁾ 관북지방의 의병운동은 군대해산 후 개성진위대 병사 출신의 尹東涉이 군인 27명을 거느리고 함남 영흥 황천면에 이르러 의병을 조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⁵³⁾ 이때 차도선이 운동섭의진에 일시 참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차도선·홍범도의진은 서울에서 내려온 운동섭의 활동에 자극받아 일어난 의병이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측은 관북의병이 일어나기 직전에 강원·경남관찰사를 지낸 별입시 朱錫堯(회령인)이 강원·함경도 지역을 왕래하며 의병봉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⁵⁴⁾

50) 安圭洪, 『澹山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 3, 325, 329, 338-349쪽.

51) 『寶城群鄉土史』, 279-280쪽.

52) 愼鏞廈, 『洪範道 義兵部隊의 抗日武裝鬪爭』,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리인섭의 편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洪範道篇』, 1995, 36쪽.

그런데 1908년 3월 12일(음2/10) 차도선·홍범도의병이 임강현의 대노야 앞으로 보낸 무기요청 서한의 말미에는 차도선·홍범도의병의 근왕적 성격을 알려주는 비밀이 담겨있다. 즉, 거기에는 “義陣. 謀事將 朴忠保·都大將 車道善·副大將 洪凡道·右大將 梁鳳翊·左大將 太陽旭” 등 의진의 직임과 임원의 성명이 부기되어 있었다.⁵⁵⁾ 이때 의병장 차도선·홍범도보다 상위 서열에 위치한 모사장 朴忠保는 미지의 인물인데, 그 직책으로 보아 북청 의병의 전략과 전술을 통괄하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金顯峻(영남-충북)·金斗星(연해주)·劉秉淇(호남)의 경우처럼 고종세력의 밀사로서 관북지방의 의병을 이면에서 지도하고 후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6. 병사층의 지향과 군자금 문제

한말의병의 다양한 참여세력들은 외세배격이 선결과제라는 민족적 위기의식에 공감하여 연대관계를 맺었다. 이때 다양한 의병세력을 대표하는 고종세력과 유림집단과 평민세력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지향을 보였다. 즉, 충군애국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그들의 표면적 연대관계의 이면에 깔린 궁극적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체로 고종세력에게는 친일파를 척결하고 신정부를 수립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유림층과 해산군관에게는 강력한 의리심과 애국심에 따라 일본세력을 물리치려는 사상적 동기가, 평민층에게는 의병에 참여하여 급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제적 동기가 보다 강하게

54) 崔永禧, 「韓末 官人の 經歷一般」, 『史學研究』 21, 1969, 411쪽. 주석면은 별입시 閔景植의 문객이자 고종 측근인 李容翊과 결의형제 사이였다.

55)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4, 1083쪽; 『統監府文書』 5, 「淸國에 舉事協助 要請 書翰」, 199쪽.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명한 항일의병장, 일부 척사·혁신유림, 전직 군관 등 비교적 사상성과 애국성이 투철했던 우국지사들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의병세력들은 다소간 권력욕과 공명심과 생존투쟁을 위해 거의 활동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⁵⁶⁾

한말의병운동의 실질적 무력기반은 포군과 해산군인들이었다. 이들은 전·후기 의병운동기에 친일개화파와 일제의 군대해산 조치에 따라 실직상태에 있다가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의 소모에 응하여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다.⁵⁷⁾ 이들 가운데 일반 포군은 대체로 ‘포군명부’나 ‘포수안’에 등록되어 지방관아와 포군지도부의 통제를 받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포군지도부는 한말의병운동시에 고종세력의 집중적인 포섭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왕의 연구와 달리 해산군인들이 후기 의병운동뿐만 아니라 전기 의병운동기에도 포군과 함께 병사층의 주축세력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외에도 각지의 유력자들이 비적 방비를 위해 별도로 양성한 사병이나 家兵도 포군이나 해산군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말의병운동시에 병사층(해산군인 포함)은 일정한 의식의 정향이 없이 자신들의 전투능력의 대가만 주어지면 그 보수에 따라 행동하는 용병적 성향을 지닌 군대였다.⁵⁸⁾ 물론 고종세력과 유림의병장의 애국정신에 감화되거나 혹은 일제의 대한침략을 규탄하는 의분심에 따라 일부 포군이나 해산군인들이 보수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병사층의 의병참여는 자발적 참여보다는 의병지도부의 강제소모와 징발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액의 급료를

56)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목한 연구로는 이상찬, 「갑오개혁과 1896년 의병의 관계」, 『역사연구』 5, 역사학연구소, 1977;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國學資料院, 1999, 제4장 제2절 참조.

57) 1895년 윤5월과 7월의 지방병 해산조치와 1907년 8월 군대해산, 9월 ‘총포급화약류단속법’의 제정은 해산군인들의 의병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58) 趙東杰, 「獨立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的 位置(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지식산업사, 1986, 18쪽.

받기 위해 의병진에 투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이른바 의병정신은 평민 병사층의 민중성이나 반제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사·옥사한 항일의병장들과 척사·혁신유림 및 해산군관들의 충군애국론에 기반한 의리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말의병운동 당시 병사층이 자신들의 무장활동의 대가로서 일정한 급료를 받았던 사실은 일반적 현상이었다. 전기 의병운동기에 병사층은 정부가 의병운동 직전과 직후에 防盜를 위해 설치한 別砲軍들보다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았다. 1894년 9월경 경무청 구식포졸의 급료가 쌀 반가마였고, 12월경에 설치된 入直兵丁의 식료가 1인당 9냥이었고, 그리고 중앙군대인 제1훈련대의 급여가 1인당 9냥에 上白米 6말이었다.⁵⁹⁾ 또 1896년 3~6월경 각기 청도군수와 경주군수가 비도 방비를 위해 설치한 별포군들은 월 10냥 정도를 식료로 지급받았다.⁶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포졸들과 포군들은 대략 한달에 대략 10냥 정도를 급료로 받았다.

이에 반해 을미의병 가운데 노응규의 진주의병의 경우 일반 포군은 1인당 월 27~28냥 정도를, 요해처를 방수하는 포군은 월 54냥 정도를 받았고,⁶¹⁾ 청송의병의 포군은 매월 45냥 정도를 받았으며,⁶²⁾ 민용호의 강릉의병은 아마 민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약 18냥을 지급한다고 선전하였고,⁶³⁾ 제천의병의 민방위부대인 민군이 일률적으로 10냥을 지급받은

59) 『公文編案 要約』 1,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12·119·132쪽.

60) 『公文編案 要約』 1, 416, 647쪽; 『公文編案 要約』 2, 24·250쪽.

61) 진주의병장 노응규는 보통 포군들에게 한달에 엽전 2관문(20냥)과 쌀 6말을 급료로 지급했고, 또 요해처를 지키는 포군에게는 하루에 1냥 8전씩을 지급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249-250·265쪽.

62) 權大雄, 「1896년 靑松義陣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59-60쪽. 청송의진의 포군은 매일 1냥 5전을 받았다.

63) 강릉의병의 포군들은 매일 쌀 두되와 엽전 30문을 받았다. 강릉의병장 민용호는 비용절감을 위해 武士廳을 폐지하려 했으나 武士들이 모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하에 급료를 30% 삭감하였고, 砲領將에게 포군급료의 50% 삭감을 제시하여 40%를 깎았다. 閔龍鎬 著, 李泰吉·閔驥植 共譯, 『復齋集』, 278-279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江原道 新坪場에 集合한 暴民의 情況」, 227쪽.

것으로 보아⁶⁴⁾ 유인석의 제천의병 포군들은 민군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높은 급료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을미의병에 참여한 포군들은 군대해산 이전 및 아관파천후 지방 각지에 배치된 포군들에 비해 대략 3배 이상의 높은 급료를 받았던 것이다.

후기 의병운동기에도 병사층은 무장활동의 대가로 일정한 급료를 받았다. 호남의병장 가운데 최익현은 포수들에게 하루에 40전, 즉 한달에 12냥 정도를 급료로 지급하였고,⁶⁵⁾ 심남일은 병사들에게 1일 엽전 100문 즉 한달에 30냥의 급료를 지급했고,⁶⁶⁾ 전해산도 “(도주한 군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만 전후로 40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급료를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⁶⁷⁾ 황해도 의 李鎭龍은 병사들에게 직임에 따라 6원부터 12원까지 급료를 차등있게 지급하였다.⁶⁸⁾ 그리고 맥켄지가 원주에서 만난 6명의 의병 가운데 3명은 ‘품팔이꾼’이었으며, 의병장은 각지의 부호가 회사한 군수 전으로 병사들을 모았다.⁶⁹⁾ 또한 허위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고종의 측근인 鄭煥直에게서 2만냥을 받아 우선적으로 떠도는 군인들의 생계유지비로 지급하였다.⁷⁰⁾ 이 외에도 수많은 의병들이 그들의 의병활동의 대가로 급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병사층의 급료수령 문제는 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을미의병 당시 경북 청송의병들의 발언을 보면 병사층의 의병참여 동기가 경제적 동기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본 읍이 창 의 초에 군인의 급료로 매월 1냥 5전을 준 것은 軍心을 수습 하고 병정을 모집할 계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군대의 수가 10哨(1초:10

64) 張益煥, 『日記』, 112-113쪽.

65)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77쪽.

6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2, 662-663쪽.

67) 全垂鏞, 『全海山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503쪽.

68)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5, 569쪽.

69) F.A. 맥켄지 저, 이광린 역, 『韓國의 獨立運動』, 일조각, 1969, 116-117쪽.

70)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國譯 許爲全集』, 아세아문화사, 1985, 91쪽.

명)나 되니 용도가 날로 궁색해져 부득이 각 영에서 하나같이 급료를 감하여 軍料를 1냥으로 정하였다. 하루는 100여명의 포군이 일제히 나아가 호소하기를, “소인 등이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의진을 쫓은 것이 오늘로 한 달이 넘었는데, 약간의 日料에서 남는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양육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급료를 감하여 소인들의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소인 등은 의거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곧 행장을 꾸려 강을 건너 백사장에 結陣하였다. 그 때문에 군문 집사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타일러 돌아오게 하니, 또 解陣하여 곧장 靑雲으로 올라가 집사에게 충을 쏘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죄상을 추궁하면 창끝을 돌릴 병정이 다수 있을 것 같으니, 가령 서둘러 경계할 일이 있을 때에 어찌 한 사람의 병정인들 우리를 따르려 하겠는가.⁷¹⁾

의병군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고종세력이나 재야의병장이 창의를 모색할 때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포군의 급료와 군수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부호들이 회사한 자금과 관청에서 탈취한 公貨를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고종세력의 군자금과 친일적 부호·관료·관청의 재산을 탈취하여 군자금으로 이용하였다.⁷²⁾ 이때 고종세력의 군자금은 일정 지역의 재야세력으로 하여금 의병부대를 모집·구성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것은 장기간 무장군사활동을 지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들이 내놓은 거액의 자금이 의병운동 발발 직전과 직후에 이미 병사모집비, 군수품 마련비, 병사급료 등으로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⁷³⁾ 이로 인하여 의병진이 구성되어 본격적

71) 金喜坤·權大雄 편, 『赤猿日記』, 『韓末義兵日記』, 국가보훈처, 2003, 322-323쪽.

72) 후기 의병운동기에 의병장 閔宗植·申丕石·金道鉉·鄭鏞基·林炳讚·梁漢奎 등은 가산을 기울려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73) 1908년 겨울 1만여명의 군세를 자랑했던 13도창의군의 군수비와 1909년 2월경 경기 북부의 이은찬·윤인순·정용대부대와 강화의 池洪一부대가 소지했던 550여정의 최신식 서양무기 구입비 등은 고종의 내탕금이나 고종측근들의 특별지원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統監府文書』 6, 『暴徒首領 李殷瓚等 武裝出現 件』, 16-17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2: 義兵篇V』, 409, 625-626쪽.

군사활동에 돌입한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군사들의 유지비와 급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병사층의 급료 및 군수비 마련문제는 한말의병운동시의 수많은 의진들이 어찌하여 친일적 관군과 일본군에 대한 공격보다도 지방관아 및 친일파·요호가·별열가에 난입하여 그들로부터 군수전을 탈취하는데 주력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나아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平時보다 적어도 2~3배 이상 지급하는 고액의 급료도 병사층을 의진으로 불러들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 병사층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액수의 급료와 운용비를 먼저 확보해야만 의진의 운영과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고비용체제는 한말의병운동의 민중적 내지 반봉건적 성격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맺 음 말

여기서 선보인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반영된 기본관점은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장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이 국망기의 민족운동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논급한 내용을 토대로 한말의병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히 짚어 보겠다.

첫째, 한말의병운동은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인 반일민족운동이 아니라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한 반일민족운동이었다. 기왕에는 민족주의적 연구경향과 평민주의적 연구경향을 막론하고 모두 유림층(혁신유림·척사유림)·해산군인·포군·농민·보부상·임노동층 등으로 구성된 재야세력이 의병운동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말의병운동의 태동과 전개에는 재야세력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권력주체인 고종

세력(고종황제와 그 측근)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한말의병운동은 갑오경장 이래 역사의 전면에 분출되기 시작한 재야세력의 항일의지와 국권과 군권 및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강렬히 항일활동을 펼쳤던 고종세력의 구국의지가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말의병운동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합작품이었다.

둘째, 고종은 한말의병운동을 이면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후원한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기왕에는 유림층과 민중층의 자발성과 순수성만을 강조하느라 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의 활약상과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국가의 명운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일제의 협박과 감시에 대항해 가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고종은 구미 열강을 끌어들이어 일제를 견제하려는 중립화정책을 행하고, 구미 열강과 주한 외국공사관 및 국제회의에 청원특사를 파견하고, 주한 외국공사관이나 해외로의 망명을 추진하고, 측근을 파견하여 재야세력의 창의를 촉구하였다. 이처럼 고종은 외교투쟁·파천(망명)운동·의병운동 등 한말 민족운동의 주요 흐름들을 선도해 나갔다. 이때 여러 흐름들은 거의 동시에 다각도로 추진됐는데, 그 가운데 청원외교와 파천운동과 의병운동은 고종의 항일방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고종세력의 항일구국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권수호외교나 국왕파천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고종세력은 일본군과 친일파를 한반도에서 구축하기 위해 밀지나 마패를 지닌 밀사를 지방 각지에 보내 재야세력의 거의를 촉구했다. 그들은 재야에서 봉기한 항일의병이 인근에 주둔중인 일본군 수비대의 적수가 못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방의병의 치열한 항일전을 배경삼아 열강 상대의 청원외교나 고종의 파천을 성사시킴으로써 일제의 대한침략을 막아내려는 그들 나름의 웅대한 항일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고종세력은 지방의병이 항일활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고종파천운동이나 군세외교정책을 성사시키려는 聲東擊西戰略을 구사하고 있었다.

넷째, 고종 명의의 밀지와 고종세력이 파견한 밀사들의 활동은 한말의병운동의 연합화·전국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야의 항일의병장들이 대단히 중시한 밀지나 밀사의 내락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그것들은 유교적 전제군주제 국가인 대한제국에서 재야세력이 의병활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필수조건이었다. 그래서 전·후기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수많은 의병장들이 모두 고종세력에 계서 밀지나 내락을 받은 다음에 거의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일정 지역에 창의소를 차려놓고 소모관을 통하여 창의격문과 밀지 사본을 인근에 보냄으로써 의병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밀지를 받은 의병장이 밀지의 사본이나 창의격문을 받고 뒤늦게 봉기한 주변의 군소의병장들을 통합함으로써 대규모 연합의진을 형성하였다.

다섯째, 한말의병운동 당시 이른바 평민의병장들이 고종세력과 밀접한 연관하에 활동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민의병장을 대표하는 신돌석·안규홍·홍범도 등은 모두 고종세력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신돌석은 정환직-정용기 라인과 김현준-이상룡 라인을 통해 이중으로 고종세력의 영향을 받았다. 안규홍은 민영철-안극·박남현 라인을 통해 고종세력의 지도와 후원을 받았다. 홍범도는 경성인으로 추정되는 박충보로부터 전략과 전술을 지도받았다. 이 외에도 문헌으로 확인 불가능한 많은 평민의병장들도 위의 인사들과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의병장의 신분상의 평민성만을 가지고 그들의 의병운동 성격을 평민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해석이다. 차라리 고종세력의 근왕성과 평민의병장의 평민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의병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첩경일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6. 28,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한말의병운동, 고종, 고종세력, 밀지, 국왕파천전략, 국권수호외교, 평민의병장, 포군, 해산군인

<ABSTRACT>

The Influence of Gojong Forces on the Righteous Army Movement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Oh, Young-sob

This Research on the Righteous Army Movement (RAM), has been, by-and-large, divided into two tendencies. One is a nationalistic inclination, which focuses on the Chief of the Righteous Army, while the other is a popular-oriented one, centered on the commoner participants. There is, of course, research that alternates between the two tendencies. The two tendencies, however, constitute the mainstream, with the former mainly focusing on Yangban,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nd retired military officials; and the latter on mercenaries, retired soldiers and tenant farmers. There is anothe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he former with case studies on anti-Japanese activities of the Chief of the RAM, who was active in certain areas and the ideology of the Righteous Army and the latter with analysis on the socio-economic direction of commoners and their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Despite the discrepancy in their perspectives, both studies focus on activities of people out of office and argue, with one accord, that it was the commoner chiefs who had led RAM since disbandment of the regular army.

The two research tendencies focusing on the RA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have left behin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y have failed to pay attention to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non-governmental forces in accounting for the genesis, evolvment, objective

and characteristics of RAM. Second, they have disregarded the fact that RAM was closely linked to such movements by central forces as the Emperor's Refuge, Neutralization of Korea, and Diplomatic Petition beyond simply armed resistance of non-governmental forces. Third, they have failed to analyze the discrepancy of policy lines and interests among different groups and stratum participating in RAM. Fourth, by putting too much weight on regional case studies, they have not done an adequate job in uncovering the general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AM and their impact on future RAMs. Fifth, they have overlooked the continuity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RAM by overrating changes in features of RAM that took place for a mere 20 years. Due to the above reasons, these two research tendencies have rarely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RAM.

This paper is a criticism of and supplement to these two research approaches; and, especially important, it has been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that Emperor Gojong and officials around him, as well as people out of office, brought substantial impact on the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RAM. It has also made clear that the renowned chiefs of RAM did not raise an army exclusively on their own initiatives, but through coordination with Emperor Gojong and his aids. Further, it reveals the depth to which an emissary or secret orders, the medium representing the authority of central force, could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forces. In sum, this paper provides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initi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A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Righteous Army Movement, Emperor Gojong, Gojong Forces, Secret Orders, Emperor's Refuge Movement, Diplomatic Petition Movement, National Sovereignty Protection Movement